

1월17일(월)/고전 14:1~19

### 제목: 방언 은사에 관하여(1)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으로 인간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2절).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2절). 방언 은사를 사용하면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4절). 그러나 교회를 풍성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즉 예언 은사는 교회에 유익이 된다(4절). 그래서 방언 은사보다 예언 은사를 더 사모해야 한다(5절). 피리는 제대로 화음의 법칙에 따라 소리를 내야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는 잡음만 낼 뿐이다(7절).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서 계속 말만한다면 서로가 외국인인 되는 것이다(11절).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다 의미가 있어야 한다(10절) 무엇이든지 의미가 있어야 한다. 방언이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통역 은사를 받아야 한다(13절). 통역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방언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것보다, 의미있는 분명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19절). 성경은 방언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의미있고 감동적인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사모할 것을 장려한다.

1월18일(화)/고전 14:20~25

### 제목: 방언 은사에 관하여(2)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각하고 사교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발 유치해지지 말라고 한다(20절). 고린도 교회 내 방언 문제로 상당히 골치가 아팠던 모양이다. 여기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을 날카롭게 대조한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다(22절) 교회 내에 믿는 자들 사이에서 하는 방언의 무가치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22절). 바울은 한 예를 든다. 어떤 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무수한 방언 소리들을 들으면 아마 그는 ‘이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23절). 또 어떤 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예언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그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다(24~25절). 방언은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방언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죽어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들이 많다. 이들은 성경 위에 앉아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다.

1월19일(수)/고전 14:26~33

### 제목: 방언 은사에 관하여(3)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는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다(26절). 방언과 예언도 마찬가지이다. 방언은 어느 때에 하는 것이 좋은가? 방언은 방언 은사를 가진 두 세 사람이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두 세 사람 중에 반드시 그 방언을 해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해야 한다(27~28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방언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혼자 해야 한다(28절). 예언 은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은사는 누구나 가진 것이지만 그 경우도 두 세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행사해야 하며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며 같이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다(30~31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를 원하시지만 무질서는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33절). 은사를 받은 자는 누구나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질서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도 안된다. 방언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방언 통역 은사를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두 세명의 방언 은사자들을 찾아야 한다. 교회 안에 방언 통역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1월20일(목)/고전 14:33~36

### 제목: 성서 해석의 원리

바울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하며, 혹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것이지 교회에서 묻는 것을 금기하였다(34~35절).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시대는 여자의 지위가 이 정도였다.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가정이나 사회의 문화와 사상에 영향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다. 그도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는 당시 통념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본문은 성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석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좋은 본이 되는 본문이다. 성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보낸 책이 아니다. 성서는 인간이 기록한 책이며 그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서 인간이 알아야 할 꼭 필요한 하늘의 지식을 담았다. 그러므로 성서 해석은 반드시 그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오늘날 여성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영해(靈解)란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서해석은 제대로 공부한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1월21일(금)/고전 14:37~40

**제목: 신령한 자가 교회를 어지럽힌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가 ‘신령한 자’ 라고 생각하면 바울 자신이 써 보내는 편지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37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열심히 예언하며 방언하되 자신이 앞서 가르쳐준 그 원리 안에서 하라고 강조했다(39~40절).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억제하고자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가 목적하는 바는 오직 교회의 질서였다. 고린도 교회의 큰 고통 중 하나는 소위 ‘신령하다는 자들’ (37절), ‘은사 받은 자들’, ‘기도 많이 한다는 자들’의 무질서와 유치한 경쟁이었다. 이런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무시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자신의 말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 달라고 간곡히 권유할 리가 없다(37절). 그들은 교회에 앉아서 ‘바울의 가르침이 제일 낮다’ ‘게바의 가르침이 더 위이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뛰어나다’ 하면서 교회에 파당을 조성 하였던 사람들이다(1:12). 그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교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사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장본인들이었다. 그럴 바에 신령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아니 기독교 안에 ‘신령한 자 사상’은 없다. 신령한 사상은 무속(샤마니즘)에서 온 것이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